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4년 11월 21일 오후 9시 35분(현지시각),
브라질 카시아스 도 술, 비르비 라모스 병원에서
에밀리아, 마리아 엘리사 코멜라또 수녀님이
향년 95세, 수도생활 67년으로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발현 축일에 우리는 시편 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빠스토렐라로서의 성소 선물에 충신했던 엘리사 수녀에 대한 찬미가로, 신자들이 영광 안에서 기뻐합니다. 사목 사명에서 선한 목자님께 기도 안에서 살고 전적인 봉헌으로 받아들여진 선물입니다.

에밀리아는 1929년 8월 7일 테세이라 레구아/RS에서 태어나 같은 해 8월 25일 성 베드로에게 봉헌된 출생지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2년 10월 6일 테세이라 레구아 수녀원에 입회했고, 1956년 1월 5일에는 입수련했습니다. 1957년 1월 6일 마리아 엘리사 수녀라는 이름으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첫 서원 후 벤토 곤살베스/RS 공동체로 파견되었고, 1962년 1월 6일에는 카시아스 도 술-S. 레오폴도/RS 공동체에서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엘리사 수녀는 수녀회에 입회하기 전, 빠스토렐레가 테세이라 레구아에 진출하기 전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알베리오네 신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고 평생 그의 제안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엘리사 수녀는 기도에 충실한 수녀로 묘사되며 기도에 대한 그녀의 증언은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소를 하느님 사랑의 소중한 선물로 사랑했고, 각자가 받은 카리스마에 대한 일치와 충실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녀는 단순하고 헌신적이었으며 시간을 체계적으로 사용했고 항상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목 생활 중에도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 봉성체를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봉헌도 잊지 않았습니다.

종신서원 후 벤토 곤살베스 공동체로 돌아와 1967년까지 머물렀습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카주자 페레이라에서 주로 본당 구역 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당에서 사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71년에는 카시아스 도 술 공동체의 S. 레오폴도 공동체로 전임되어 주로 학교에서

사목 활동을 수행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사목 협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카시아스 도 술 - 테세이라 레구아로 돌아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1년에는 건강이 불안정해져 카시아스 도 술에 있는 '카사 베타니아' 공동체로 옮겨져 수녀님들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투병 기간 동안 친절과 사랑으로 엘리사 수녀와 함께한 수녀님들과 항상 세심하게 엘리사 수녀를 돌봐 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녀들은 엘리사 수녀를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강인하고 예리하게 대처할 줄 알았고 형제애를 가지고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녀로 기억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물었고, 필요할 때는 확고한 신념과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 외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작고 연약한 사람들, 어린이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수녀는 여러 곳을 지나는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교사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말에는 병자들을 위한 특별 봉사체로 봉사하며 병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녀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가족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녀는 아이들을 잊지 않았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도 학생들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기억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엘리사 수녀는 항상 동료수녀들과 친밀하고 관대했으며 공동체에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공동체 생활에 매우 책임감 있고 지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일간지 읽기를 멈추지 않고 뉴스를 공유했습니다. 수녀는 항상 단순하고 지혜로우며 순종적이고 기도하는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수녀는 빠스또렐레의 생활 규칙에 따라 수도 생활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사 수녀님, 하느님의 자비에 당신을 맡기면서, 우리는 수녀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충실한 빠스또렐라로서 당신의 삶으로 사랑 안에서 형성한 많은 세대에 선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녀님께 전 세계적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평화의 선물을 위한 전구의기도를 청합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 장

2024년 11월 21일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발현축일에